

# 대한자동차경주협회 특별 조사위원회 개최 결과

-공인 대회 지정 부품 규격 차이 발생의 건-

## I. 조사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윤철수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이사, 조사위 위원장),

공준덕 (대한자동차경주협회 기술위원), 김덕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이사), 양돈규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이사), 최용석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스포츠사업팀장) 이상 5인

[조사 기간]

2020년 12월~2021년 2월

## II. 조사 목적 및 배경

[조사 내용]

지난 2019년 대한자동차경주협회 공인 대회인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슈퍼6000 클래스 경주차에 사용되는 지정 부품인 '리어 업라이트'(Rear Up right, 통칭 Knuckle 또는 Hub Carrier) 유통 과정에서, 규격이 상이한 제품이 서한GP를 비롯한 참가팀 일부에 공급된 건에 대한 조사.

[조사 및 의견 청취 대상]

서한GP 등 슈퍼600클래스 참가팀, (주)슈퍼레이스

## III. 조사 결과

해당 업라이트(Upright)는 더블 위시본(Double Wishbone) 방식의 서스펜션 구조에서 어퍼 암(Upper Arm)과 로어 암(Lower Arm), 그리고 풀 로드(Pull Rod)가 체결되는 부품으로, 주최사가 일괄 제작하여 참가팀에 공급하였다.

조사위는 서한GP팀 및 대회 관계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부품을 실사한 결과, 문제가 된 부품이 타 서스펜션 구조물과 체결되는 각 접합부간 거리가 정상품과 다르게 측정되는 등, 공급 시기에 따라 형상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서한GP팀은 해당 부품 세 세트를 2019~2020년간 총 3대의 경주차에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서한GP 이외의 팀이 해당 부품을 사용하였는지는 추가 확인되지 않았다.

#### IV.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조치 사항

조사위원들은 치수와 형상이 상이한 업라이트 부품은 타이어에 미치는 영향이 정상품과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기술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대한자동차경주협회는 조사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품 공급을 담당하는 주최측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 1. 공식 제작부품의 도면화

주최사는 참가 팀에 공급하기 위해 자체적, 공식적으로 제작하는 부품들을 도면화해 대회 규정에 포함한다.

도면은 실물 부품과 대조 및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또 매 시즌 개막 이전 협회에 KS 표준에 따라 작도된 조립도(Assembly Drawing)와 부품도 (Part Drawing)를 인쇄본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부품 분류	명시 품목	단위
2021년	Drivetrain	업라이트 파트	4종
		드라이브 샤프트	2종
	Suspension	위시본파트	8종
2022년	Drivetrain	허브 (프론트, 리어)	3종
	Suspension	휠 볼트, 너트	3종
	Brake System	디스크 로터벨하우징	2종

##### 2. 부품 검수 절차 강화

주최사측은 2021 시즌을 포함해 차후 참가 팀에 부품을 공급할 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부품 검수 절차를 강화할 보완책을 마련한다. 주최사가 참가 팀에 부품을 인계할 시 주최측 담당자와 참가팀의 담당자가 해당 부품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상호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

또 규정에 도면화 한 부품의 목록 또는 규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참가팀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주최측은 상기 조치와 관련, 부품의 기획→설계→발주→제작→입고→검수→출고 단계로 구체적인 관리 개선 방안을 수립해 2021년 시즌 개막 이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제공된 부품에 대한 재조사

주최사는 서한GP에 공급한 업라이트에 대해 기존 참가팀에 공급한 부품들에 규격상의 문제가 없는지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문제가 확인된 부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기술적 공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급된 부품에 대한 재조사 및 교환 등의 조치는 2021 시즌이 개막하기 이전 완료되어야 하며 결과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주최사가 상기 개선안을 마련하고 수행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인력 및 비용 투입이 필요한 점, 감염병 상황에서도 위기 경영을 하는 주최사에 부담이 되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협회의 관리 강화를 통해 지정 부품 관련 논쟁이 종식되기를 바라는 서한GP측의 요청이 타당하고, 대회의 기술적 공평성 확보가 다른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결정하였음을 밝힌다. <끝>

2021년 3월 19일

대한자동차경주협회

특별조사위원회